

“대규모 민자유치사업들을 대전의 신성장동력으로 이끌기 위한 완벽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 황 응 상 의원**
(새누리당 서구 제4선거구)



* 황 응 상 의원

「시정질문」과 답변 내용입니다.

시장과의 일괄질문·답변을 1문 1답 방식으로 편집하였습니다.



◎ 황응상 의원

서구 제4선거구 황응상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 신중심도시 대전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염홍철 시장님과 명품 대전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신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한해를 마무리하고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에 전념하는 지금 대전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나가야 할 책임과 의무를 인식하고 그 소임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짐합니다.

존경하는 염홍철 시장님께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대전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엑스포재창조와 유니온스퀘어사업 등 외부자본 유치 노력은 대전의 미래와 침체된 지역경제의 돌파구를 찾기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렇게 대전의 경제지도가 달라질 수 있는 사업에는 여러 가지 변화와 위험이 따를 수 있기에 각계각층의 관심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은 당연하고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오늘 대전시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민자사업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극복해야 할 당면과제들을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롯데테마파크와 신세계유니온스퀘어 등 대형 민자유치 사업 추진의 당위성 및 공익성이 미흡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롯데와 신세계에 따르면 롯데복합테마파크가 조성되었을 경우 우리 대전에는 약 1만 9,000명의 고용효과와 연간 1,140만 명의 관광객 유입효과가 있을 것이며 약 2조 6,00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신세계유니온스퀘어가 조성될 경우 대전에 연간 1,500만 명의 관광객 유입효과와 5,000여 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으며 개장 초기 3년간 직·간접적인 경제효과가 무려 8조 1,7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롯데와 신세계의 발표대로라면 대전 지역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기에 시민들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기뻐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롯데와 신세계 측의 발표와는 달리 롯데테마파크 및 유니온스퀘어 조성 시 지역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 시민, 시민단체,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롯데테마파크와 유니온스퀘어가 조성될 경우 엑스포과학공원이 갖는 과학 이미지와 상징성의 퇴색, 지역 중소기업의 피해,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교통 문제 등과 대기업에 대한 특혜 등 각계각층에서 제기하고 있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추진하려고 하는 의도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롯데테마파크와 유니온스퀘어 관련 지역 중소기업의 피해와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문제입니다.

시민, 시민단체 및 전문가들은 신세계유니온스퀘어의 프리미엄 아울렛, 문화예술 및 엔터테인먼트 시설 등과 롯데테마파크의 문화수익시설 등 대규모 상업시설과 위락시설들이 입주하게 되면

또 다른 형태로 우리 지역 중소상인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롯데테마파크 및 유니온스퀘어 내 문화 수익시설은 지역의 소상공인 업종과 차별화되어 오히려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 우수상품 발굴 및 판로 확대, 외래 관광객 유입에 따른 식·숙박 수요 증가 등으로 지역상권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지난 10월 29일 신세계가 유니온스퀘어사업 투자규모를 당초 4,000억 원대에서 6,000억 원대로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한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에 대해 지역언론 및 시민단체에서는 신세계가 롯데테마파크에 밀리지 않고 대전의 유통시장을 선점하려 초대형 복합 쇼핑몰을 추진하는 게 아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롯데와 신세계라는 국내 굴지의 두 유통업체가 대전의 유통시장을 잠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얼마 전 신세계유니온스퀘어의 개발사업 주체를 대형마트인 주식회사 이마트가 맡아 추진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업종 간 차별화 전략으로 지역 상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겠다고 하는데 막상 두 업체가 영업을 시작하면 그때는 대전시의 유통업계가 뿌리째 흔들리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시장님께서서는 이들로부터 대전의 중소기업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우리 지역 대형마트는 연간 약 1조 3,0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이러한 자금들이 고스란히 수도권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재 상태를 미루어볼 때 롯데테마파크 및 유니온스퀘어 개장 운영 시 롯데 및 신세계는 우리 지역에서 벌어들인 자금을 본사가 있는 서울로 송금할 것이라 생각되며 그에 따른 대전의 지역자금 유출은 지금보다 훨씬 심각해질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롯데 및 유니온스퀘어가 지역 독립법인을 설립해야 하며 지방은행 설립 시 롯데 및 유니온스퀘어의 금고로 활용토록 요구하는 등 지역자금 역외유출 방지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의견에 대해 시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혹시 다른 대안을 가지고 계신다면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롯데테마파크 조성에 따른 교통정체 문제입니다.

지역 교통전문가들에 의하면 롯데테마파크를 방문하는 외지 차량은 북대전IC와 유성IC를 통해 과학로와 대덕대로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전시에서 실시한 교통성검토에 의하면 대덕대로는 통행 속도에 따른 도로서비스 수준을 A~F등급으로 나눌 때 최하위 수준인 E등급을, 인근 과학공원 네거리 교차로 서비스 수준은 F등급을 받았고 지금도 출퇴근시간 상습 정체구간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롯데 측의 발표대로 롯데테마파크 조성 후 연간 1,140만 명이 방문한다고 가정하면 평일의 경우 출퇴근 차량과 혼잡을 야기할 것이고 특히 휴일과 공휴일에 관람객들이 몰리면 주차 및 교통 대란이 발생할 것이 예측됩니다.

또한 한빛탑 우측으로 계획 중에 있는 호텔들에 예식시설이 입주하여 예식 손님까지 한꺼번에 몰리면 롯데테마파크 이용객들과 뒤엉켜 심각한 교통문제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에 대한 대전시의 복안은 대부분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교통 관련 시설들을 건설할 계획으로

대전시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엑스포공원 전용 진입다리인 제2엑스포교 건립비용 약 400억 원, 카이스트교 신설 비용 약 298억 원, 회덕IC 건립비용 약 650억 원, 국립 과학관과 과학공원 간 지하통로 개설 비용 약 56억 원 등

일부 교통 관련시설 건설비용만 1,400억 원 이상이 되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국비 확보와 롯데 측의 비용분담 협상결과에 따라 시의 투자예산 규모가 달라질 수 있지만 이러한 비용은 우리 시민들에게 피할 수 없는 재정부담이 될 것이라 예측됩니다.

이런 상황들을 우려하고 있는 시민, 시민단체 및 전문가들은 당사자인 롯데 측에서 과학공원 일대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기반시설 및 기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며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롯데 및 신세계의 사업효과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추진 의지 및 책임경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전일보 10월 9일자 기사 및 사설란을 비롯한 지역 언론에서는 인근 충청남도의 사례를 들어 롯데의 사업추진 의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롯데는 사업비 증가로 2013년까지 예정되었던 부여의 백제문화관광단지 관련 사업을 늦추었는데 실상은 수익성이 있는 골프장과 콘도 등의 시설은 이미 개장하여 운영하고 있으면서 수익성이 없는 테마파크 등의 조성은 늦추고 있습니다.

부담액 증가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롯데가 같은 시기에 엑스포 과학공원에 6,00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점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롯데가 복합테마파크를 쇼핑센터 중심으로 운영하고 테마파크 조성을 늦추거나 개장하더라도 재투자 없이 몇 년간 운영하다가 포기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내외 경기침체가 지속될 경우 향후 롯데와 신세계도 경기 불황을 이기지 못하고 당초 약속한 투자규모를 축소한다든지 변경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서는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 대책은 마련되고 있는지

그리고 롯데와 신세계의 사업의지를 담보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세계와 롯데 측의 발표내용을 보면 신세계유니온스퀘어는 연간 약 1,500만 명, 롯데테마파크는 약 1,140만 명의 관광객들이 대전을 방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이들 수치를 단순히 합치더라도 연간 약 2,600만 명 이상이 대전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세계 첼시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은 2008년 250만 명 정도였고 최근에서야 600만 명 정도로 늘었고, 지난해 3월 문을 연 파주 아울렛의 연간 방문객이 450만 명임을 감안하면 신세계와 롯데가 제시하고 있는 대전의 방문객 수는 과장되어 예측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용역결과를 통해 이런 데이터들이 나왔겠지만 지역의 실정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수치들에 대해 과연 어느 만큼 신뢰할 수 있을까 의문을 갖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만일 이런 예측을 기초로 한 사업들이 잘못될 경우 과연 누가 그 책임을 질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천변고속도로와 아쿠아월드 민자유치사업들에서

잘못된 데이터와 예측은 추후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와 후유증을 이미 경험한 바 있습니다.

대전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내걸고 추진하는 민자유치사업들에 대해 본 의원은 근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본 의원은 대기업들이 자신들의 영리목적을 위해 사업효과를 부풀리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대전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견인하고 시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책임경영 의지를 구현함으로써 150만 대전시민의 신뢰를 얻고 동반 성장 하려는 노력과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본 의원의 생각에 대해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대전시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엑스포재창조 사업에 대해 응답자들 중 30%가 적극 찬성하고 있고 62.8%가 찬성하는 등 응답자 92.8%가 시민들이 엑스포과학공원을 현 상태로 방치하기보다는 개발을 통해 새로운 대전의 랜드마크로 변모시키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작년 시정질문에서 시장님께 부자도시 대전 건설을 위한 수익모델 창출 등을 요구한 바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민자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대전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되기를 기대하며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전시가 엑스포재창조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유니온스퀘어로 인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라!”는 각계 각층의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들을 대전시가 겸허하게 수용하고 신중하게 검토함으로써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피해와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여

금번 민자유치사업들이 시민이 자랑스러워하는 대한민국 신중심도시 대전의 랜드마크이자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 각별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염홍철 시장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황웅상 의원님께서서는 롯데복합테마파크와 유니온스퀘어 사업추진의 당위성과 지역상권 침해, 과학공원 주변 교통문제 등에 대한 대책과 함께 이들 대기업의 사업 의지 담보방안과 지역사회와의 동반성장 등 책임경영의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두 사업은 1조 원 이상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으로서 대전 시민의 삶의 질, 2,000만 명 내외의 관광객 유치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다는 인식하에 차질없이 준비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물론 시정의 비중은 특별히 구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롯데 복합테마파크, 유니온스퀘어 등 그런 대형사업에 대해서 제가 비공식적으로는 의원님들께 부분부분 설명해 드린 바 있습니다만

‘공식적인 질문을 통해서 의사당에서 답변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존경하는 황웅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 7가지를 하나하나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롯데복합테마파크 신세계유니온스퀘어 등 대규모 민자 사업의 당위성과 공익성이 미흡하다는 일부 시민단체 등의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하는 의도가 무엇이냐는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장 큰 당위성과 가장 큰 공익성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활성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종시와 과학벨트, 청주, 청원 통합 등 대전을 둘러싼 여건 변화를 감안할 때 대전은 기회일 수도 있지만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민들 사이에서는 “대전에는 대기업의 투자가 적다, 불거리가 없다,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 갈 데도 마땅한 데가 없다.” 하는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가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의 대도시의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은 상주 인구 또 상주 인구뿐만 아니라 유동 인구, 활동 인구의 대거 유입을 통해서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또 그런 많은 상주, 유동, 활동 인구의 수요에 맞는 도시 인프라의 질적 향상이 한 도시의 경쟁력을 좌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전은 가방 들고 출장 오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교통이 좋기 때문에 잠도 자지 않고 그냥 자기 집이나 회사로 그날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가족단위로 대전에 내려와서 관광도 하고 쇼핑도 하고 휴식도 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야 진정한 대전의 경제활성화와 도시의 품격을 유지할 수 있다.

물론 롯데복합테마파크나 신세계유니온스퀘어는 대전 진출의 의사가 분명하고 또 그것이 상당히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 회사들이 수도권으로 갈 수 있고 세종과 오송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감안한다면 우리가 문제점을 보완해서 거의 완벽하게 추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만 ‘이것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현명한 판단인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엑스포과학공원만 해도 20년 동안 900억 원, 약 1,000억 원 가까이 다 소진이 되었습니다.

금년, 내년 1년에 100억 원 정도 적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행안부로부터는 청산명령을 받았는데 아직도 해결이 완전히 되지 않았습니다.

5년 동안 엑스포과학공원에 한 번이라도 방문한 사람은 10%가 안 되었습니다, 즉 시민들로부터 외면 받는 시설이었습니다.

그동안 20년 동안 많은 대안을 모색했지만 하나도 성사된 것이 없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공모사업을 추진했고 지금보다 더 좋은, 즉 주상복합 건물을 짓는다는 인센티브를 걸었지만 한 회사도 응모한 바가 없습니다.

한 기업도 응모한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침 우리나라 복합테마파크의 양대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롯데에서 대전의 여러 가지 입지조건과 미래의 가능성을 판단해서 진출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점 때문에 수용을 한 것이다.

그리고 당장 많은 고용이 창출되고, 지금 롯데만 6,000명 이상 고용이 창출되는데 6,000명 고용이라면 150개 기업을 유치한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유니온스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세금을 두 기업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롯데한테는 우리 시 소유의 부지를 활용하니까 지대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0만 명 내외의 관광객이 오기 때문에 많은 부대 효과가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저희들이 민자사업 유치의 당위성과 공익성을 거기에 찾았던 것이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고 따라서 대전의 미래를 위해 우리 세대가 이뤄야 할 과제라는 점에 더욱 크고 넓은 시각으로 이 문제를 봐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국내 최대의 유통업체인 롯데와 신세계로부터 지역의

중소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만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신세계의 유니온스퀘어는 아웃렛 중심의 쇼핑입니다.

대전에 그와 같은 아웃렛매장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아주 극소수의 품목이 겹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품목 자체가 겹치지 않는다. 또 롯데는 사실은 쇼핑 위주의 시설이 아니고 복합테마파크입니다.

그리고 부대시설로 쇼핑과 문화와 엔터테인먼트와 체험과 이런 공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롯데 임원, 사장이 왔을 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바로 이 질문을 했습니다.

“지역상품과 충돌이 되지 않느냐?” 그런 질문을 하니까 그분의 답변만으로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면 “백화점이나 대형쇼핑몰을 짓는 것은 아니고 부대시설로 쇼핑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취급하는 물건은 우리나라 최대 백화점에서

취급하는 물건보다 더 고급화 할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중소기업 침해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침해의 가능성은 크게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그러나 우리 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존 상권 보호하고 보호에 앞서 연계·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고 지역 중소기업인들이 취급하는 상품을 이쪽에서 차별화하는 문제 라든지 기존 상권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소기업들, 특히 의류와 관련된 상인들이 무슨 걱정을 하느냐 하면 “그동안의 종사자들을 훈련시켜서 아주 숙련된 종사자들이 있었는데

이 두 기업이 와서 종사자들을 봉급 조금 더 주고 다 데려가면 어떻게 하느냐, 이것 큰 문제다,”하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학생들의 고용창출을 위해서 지역 내의 고등학교 또 전문대학, 대학교와 협약을 맺어서 유통관리사, 물류관리사 등 맞춤형 인재를 양성해서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어제 다른 일로 모 대학과 저희들이 협약식을 가졌는데 거기 총장님도 “적극 이런 맞춤형 인재양성에 자기 대학에서 나서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존 소상공인에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넓은 의미의 중소상인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번에 두 기업이 들어옴으로써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대형 집객시설을 잘 이용할 경우 그 유동 인구를 통해서 음식, 숙박, 택시 등 교통수요의 증가가 되고 연계 쇼핑이 가능하다 그래서 지역상권의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세 번째는 신세계, 롯데의 지역독립법인화 및 지방은행 금고 활용 등 지역자본 역외유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그분들이 1,100만 명, 1,500만 명 관광객이 온다고 했는데 대전시민은 전부 와야 15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대전시민보다는 훨씬 많은, 최소한 쇼핑 가능한 대전 시민보다 몇 십 배 많은 외국인 또는 외지 사람들을 겨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지역 자본이 매출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역자본의 역외유출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지 독립법인화, 신세계 측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하고도 현지법인화 문제를 중점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인 협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은행 설립도 상당히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 은행 설립이 되면 두 기업들이 지방은행을 금고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또 그분들도 하나의 연고 기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롯데복합테마파크 조성 시 과학공원 일대 교통정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는가 하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는 두 가지 방향에서 질문을 하셨다고 봅니다.

하나는 구체적인 교통대책이 뭐냐는 것과, 이것 전부 하려고 하니까 1,400억 원이라는 예산이 드는데 너무 과도한 예산이 아니냐 이런 두 가지, 예산문제와 대책문제를 질문해 주셨는데

대책은 크게 세 가지로 하드웨어 즉, 교통시설을 확충하는 문제, 소프트웨어는 교통체계를 효율화하는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대중교통 이용하는 문제, 그런 세 가지 방향에서 접근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회덕IC 건설을 통해서 포화상태에 이른 신탄진IC를 보완하고 그리고 과학벨트와 세종시 연계교통을 위해서 행복도시 광역교통개선 대책에 반영하고자 우리가 지난 해부터 노력을 해서 상당히 가시적인 성과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이스트교 건설은 민선 5기 약속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2014년에는 완공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꼭 엑스포과학공원 일대의 교통뿐만 아니라 대전 시내 전체 교통과 연계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카이스트교 건설은 지금 아직 예산이 통과가 안 됐습니다만

300억 원인데 한 150억 원 정도가 내년엔 책정이 되면 이미 저희들이 예산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엑스포과학공원과 국립과학관을 연결하는 지하도로는

이미 국고 50%를 받았고 시비 50%로 해서 예산이 다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1년에 교통시설비만 1,000억 원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것을 점차적으로 추진하면 예산문제는 크게 걱정이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덕IC 건설은 국비를 받으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제2엑스포다리 이것은 저희가 사업을 아직 확정 짓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만은 롯데테마파크 조성과 직접 관련된 시설이기 때문에 롯데에서 건립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데 측과 협상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제2엑스포다리를 건설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없어도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들 도시철도 2호선 하면 대중교통으로 정부 청사, 만년교, 엑스포과학공원, 카이스트, 충남대학, 유성 사거리 연결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분산효과가 있고,

그리고 소프트웨어 신호체계를 첨단화함으로써 10% 정도 완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카이스트 교수들을 중심으로 한 전문가들의 견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미 13명의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이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고,

제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교통정책에 대한 유발시설을 교체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교통대책이 수립되는 대로 또 추가 수립되는 대로 바로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하고 시민들께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롯데와 신세계가 투자규모를 축소나 변경하고 사업을 지연시킬 때 대전시의 대책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그런 우려를 언론에서도 하는 것을 봤고 시민단체에서 지적하는 것을 봤습니다.

또 부여에 롯데가 투자를 하는데 조금 지연이 된다는 것도

저도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러나 부여도 지연이 좀 되지만 오히려 1,000억 원을 더 추가 투자한다는 보도도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롯데와 신세계라는 자금력이 튼튼한 대기업이 투자하겠다’.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계획서까지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투자할 의사가 있느냐, 나중에 변경하는 것 아니냐, 축소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이 그쪽하고 협상할 때 그것을 다그칠 수는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실시협약서에 투자규모, 사업시안을 명시토록 하고, 그리고 사업비의 일정 부분을 이행보증금으로 납부시키고, 또 임대료 납부를 언제부터 한다는 시기, 시기라는 것이 시작한다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를 확정해서 사업 지연을 예방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롯데하고 신세계가 제시하고 있는 사업

효과가 과장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여주, 파주가 아까 400만 명이라고 하셨나요, 600만 명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대전이 중부권 거점도시이자 우리 국내 최고의 교통 접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이지만 지리적으로 치우쳐 있고 경쟁 상권이 많은 여주와 파주와는 여건이 다르다고 보고 있고 또 신세계나 롯데의 사업자들이 그 점은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겠습니까?

거기보다 훨씬 관광객이 적을 것이 예상이면 이쪽에 투자 결심을 했겠습니까?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쪽이 사업효과를 제시했는데 우리 시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봤더니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업효과가 아주 결과적으로 미치지 못할지 오히려 그것을 초과할지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단정할 수는 없고 사업효과가 계획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대기업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책임경영 의지를 물으셨습니다. 이것도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이것은 저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골목상권과 대기업 동반성장은 시대적 화두입니다.

이것을 거역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대기업도 이런 추세에 부응할 것이다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그런 조짐은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롯데나 신세계 측에서 여기에 와서 사업설명회를 할 때 종업원들을 전부 지역 사람으로 고용하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고 그 다음에 토목, 건축 공사가 있고 거기들도 무슨 건설회사들을 가지고 있겠지요. 그러나 지역 건설, 토목 업체를 많이 활용하겠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상품을 우선 구매하고 자기네들의 전국적인 네트워크에 우리 대전지역 상품을 소개하여 대전 뿐만 아니라 타지역에서도 대전 상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얘기들을 쭉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학사업이라든지 주민편익사업 그런 공익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저희들도 그렇게 권고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대세라고 할까 추세를 외면할 수

없을 것이다 저희들도 그런 것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두 기업과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오늘 하루 동안 의원님들 질문이 종결되고 제가 마지막 답변을 했습니다.

신세계유니온스퀘어나 롯데테마파크뿐만 아니라 내년도에는 도시철도 2호선, 도안생태공원 등 대전의 미래를 바꾸게 될 굵직한 현안들이 본격 추진됩니다.

대규모 투자유치와 건설사업 등에 대해서 일부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것도 하나의 추세인데 소위 대규모 난개발을 우려하는 학자들의 저서나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저도 꼼꼼히 봅니다.

소위 환경론자들과 개발론자들의 논쟁 같은 것 꼼꼼히 봅니다.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심을 담은 다양한 의견과 비판은 ‘우리가 대형사업의 성공을 위한 오히려 지혜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대형사업뿐만 아니라 충남도청사 활용 등 원도심 활성화라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정책 현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역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지역의 역사성, 문화와 개성을 살리면서 지역의 공익성에 부합한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원도심개발은 과거 신도시 즉, 둔산이나 노은이나 도안의 개발방식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고 그야말로 세계적인 친환경개발 또 어떤 지역 커뮤니티 의사가 반영된 개발 그런 모델을 원도심에서 한번 이루어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우선을 지향하는 민선 5기 시정의 기본 흐름에 맞춰서 시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데 한층 더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의원님들의 고귀한 조언과 협조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